

## 표해시말(漂海始末)

牛耳□□□述<sup>1)</sup>

### 신유(辛酉)<sup>2)</sup> 12월

우이도(牛耳島)[일명 소흑산도(小黒山島)]에서 작은 배[백여 섬을 실을 수 있다.]에 짐을 싣고 태사도(苔士島)[대흑산도(大黒山島) 남쪽 수백리에 있다.]에 들어갔다. 같이 배에 탄 사람은 나<sup>3)</sup>의 작은 아버지[이름 호겸(好謙)], 문순득(文淳得), 이백근(李白根), 박무청(朴無淸), 이중원(李中原), 김옥문(金玉紋)[관동(杆童)<sup>4)</sup>]으로 흥어[속칭 무렵]를 사기 위해서이다.

### 임술(壬戌)<sup>5)</sup> 정월 18일

달줄을 풀고 다시 소흑산(小黒山)을 향하여 변도(弁島)[대흑산(大黒山)과 태사(苔士)의 중간에 있는데 속칭 곡갈이라 부른다.]에 이르러 갑자기 서북에서 일어난 큰 바람을 만나서 바람에 물리게 되어 소흑산(小黒山)에서 서남으로 수 백리를 남행하여 조도(鳥島)[섬은 진도의 서쪽에 있는데 속칭 새암이라 한다.]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려 하나 갈 수가 없다. 앞을 보니 큰 바다로 안중에는 한 점의 산도 볼 수 없다. 또 저녁이 되어 밤이 깊었으나 바람은 줄지 않

1) 원문이 마멸되어 가운데 글자를 □□□으로 표기함.

2) 1801년.

3) 표해록의 실제 체험자, 당시 우이도에 유배와 있던 정약전이 그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름을 서술하였다.

4) 머리를 두 가닥으로 뿔이 나게 묶은 어린이.

5) 1802년.

고 오경(五更)<sup>6)</sup>에 키 자루가 꺾이고 돛은 펼 수가 없어 돛대를  
고물에 묶어 키로 쓰고 가는 데로 내맡겼다. 날이 밝아 동남쪽  
에 큰 산이 바라보이니 뱃사람이 제주라고 말했는데 바라볼 수  
는 있으나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

**24일**

동풍을 만나 돛을 펴고 제주로 향하였다.

**25일**

제주의 서쪽에 이르러 다시 서북풍을 만나 동남으로 향해 갔다.

**29일**

날이 밝아 동남에 있는 큰 섬을 보고 오시(午時)<sup>7)</sup>에 배를 멈  
추고 닻을 내리니 갑자기 6, 7인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  
다. 먼저 물을 대접하고 이어서 죽을 주어 삼일을 먹지 못 했으  
니 그 기쁨을 알만 하리라. 물으니 유구국(琉球國)<sup>8)</sup> 대도(大島)  
[유구(琉球)는 지금 중산(中山)으로 바뀌다.]라 하였다.

**2월 초2일**

배로 50여리를 가서 양관촌(羊寬村)[대도(大島)이다]으로 가서  
육지에 내리니 움막 한 채를 엮어 살게 하고 문 밖에 또 움막이  
있어 8인이 지켰다.

**3월 20일**

배를 타고 섬을 따라 백 여리를 가서 금촌(禽村) 앞에 닿았다.

- 6) 하루 밤을 다섯으로 나눈 다섯째 시각. 상오 4시를 중심으로 하여 앞뒤 1  
시간씩의 동안.
- 7) 십이시의 일곱째 시. 상오 12시(正午)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각 1시간 동  
안의 시간.
- 8) 지금의 오키나와(沖縄)

[큰 섬이다.]

## 29일

배로 덕지도(德地島)를 지나고 다음날 양영부(洋永府)를 지나 입사도(立沙島)에 이르러 바람에 막혀 4일을 머물렀다.

## 4월 초4일

백촌(白村)[대도(大島)에서 1,500리, 왕도(王都) 수리부(首里府)와의 거리는 10리 이다.]에 이르니 역인(譯人)9)이 와서 사정을 묻는데 우리나라 말을 대략 할 줄 알았다. 움막 한 채를 엮어 거처하는데 사람마다 매일 쌀 한 되 다섯 홉과 채소 여러 그릇을 주고 하루 걸러 돼지고기가 제공 되었다. 또 여름옷을 내려주고 병이 들면 의원이 와서 진찰하고 약을 주었다.

## 10월 초7일

배를 띄워 대국(大國)을 향하여 세척의 배가 동시에 출발[그 두 척에는 유구(琉球)에서 대국으로 가는 관원을 태우고 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 6인과 복건(福建) 천진부(川津府) 동안현(同安縣)의 바람을 만나 조난한 32인, 유구인(琉球人) 60인을 태우다.]하여 마치 산도(馬齒山島)[백촌(白村)에서 400리]에 이르러 10일을 머물렀다. 유구인(琉球人)이 이산에 와서 기도를 하며 오래 머물러서 나가지 못하였다.

## 16일

배를 띄우다.

## 17일

서풍을 만나 10여일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시 동북풍을 만나다.

---

9) 통역하는 사람.

### 11월 초1일

여송(呂宋) 서남(西南) 마의지방(馬宜地方)에 도착하여 닻을 내렸다. 유구인(琉球人) 화인(華人)<sup>10)</sup> 15명이 물을 길어오기 위하여 육지에 올라가서 다음 날 아침 돌아 왔는데 6인이 없어져서 물으니 본국인에게 잡혔다고 한다. 여송(呂宋)의 동북에는 다섯 섬이 있어 배로 13일을 가니 보였는데 풍속을 알지 못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 12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하루를 가서 한곳에 닿았는데 [지명은 알지 못한다.] 5일을 머물며 물을 길고 옷을 빨았다. 하루를 가서 일로미(一啞 )<sup>11)</sup>에 닿았다.

일로미에는 복건(福建)사람 수 십호가 살고 있었다. [말리라(末利羅)<sup>12)</sup>는 여송(呂宋)의 지명으로 일로미와의 거리는 3일의 노정으로 복건인(福建人) 3,000호가 산다고 했다.] 복건(福建)의 풍난(風難)을 만난 사람이 왔을 때 원래 유구인(琉球人)으로부터 박대를 받았는데 일로미에 이르자 스스로 일로미에 살고 있는 복건인(福建人)에 의탁하여 집을 빌려 따로 살며 돈을 빌려 먹을 것을 마음대로 하였고 또 우리를 불러 같이 살았다. 어쩌면 유구인(琉球人)에게 빚을 떠넘기려는 계책이었다.

유구인(琉球人)에게 걸말로 들으니 여송(呂宋)은 난민을 후대하여 하루에 소 한 마리를 잡는다하니 유구인(琉球人)은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에 깨달아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복건인(福建人)은 여송(呂宋)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이 명령은 행해 지지 않았다

---

10) 중국인.  
11) Iloko, Ilokono. 언어에 일로미, 일노코가 있다.  
12) 마닐라 언어에는 「복건인(福建人) 소거리(所居里) 말나라」 라고 되어있다.

다. 나중에 비록 조금 줄었으나 음식은 박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건인(福建人)에게 의탁하여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살았다. [과연 후일 유구인(琉球人) 으로부터 은전 600량을 징구 하였다.]

### 계해(癸亥)<sup>13)</sup> 2월

유구인(琉球人)이 배로 출발하기를 청하자 복건인(福建人)이 4월에야 비로소 남풍이 부는데 지금은 순풍이 아니라서 갈 수 없다 하였다. [유구인(琉球人)은 오래 머물면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중히 여겨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복건인(福建人)은 붙어사는데 걱정이 없으므로 만전을 바라고 또 같은 배를 탄 뒤로 유구인(琉球人)을 속인 죄를 꾸짖을 것을 두려워하여 의견이 맞지 않았다.] 유구인(琉球人)이 위협하고 꺾어서 복건인(福建人) 5명과 조선 사람 4명이 [나의 작은 아버지, 이백근, 박무청, 이중원] 먼저 배로 갔다. [배는 관에서 10리에 있다.] 유구인(琉球人)이 다시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독촉하였으나 복건인(福建人)은 강하게 거부하여 10일 동안 서로 버티었는데, 유구인(琉球人)은 말없이 나가서 다음날 들으니 유구인(琉球人)의 배는 이미 떠났다고 했다.

내가 생각건대 유구인(琉球人)은 국명을 받아 우리 난민을 구제 하였는데 비록 지금 배에 탄 사람이 9명이 있으나 남은 사람이 아직도 27명이 있다. [복건인(福建人) 25인, 조선인 2인.] 그들이 비록 자기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원한을 품고 버려두고 먼저 갔다 하더라도 본디 의논이 하나 되는 것을 기다려 대중을 따라 떠나거나 머무르려 하였다. 일찍 이것을 알았다면 비록 유구선(琉球船)에서 죽더라도 어찌 작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겠는가. 만 번 죽어 한번 살아도 부자가 각각 떨어져 홀로 옥

---

13) 1803년.

문(玉紋)을 데리고 있는 내 심정은 어떻겠는가.[유구인(琉球人)의 배는 3월 16일에 출발 했다. ▫ 돌아와 들으니 작은아버지는 갑자년(甲子年)<sup>14)</sup> 3월에 귀국했다한다.] 나머지 27명은 이미 유구선(琉球船)을 잃고 뒤에 남겨져 호구(糊口)의 계책도 없었다.

한 수도인이 있었는데 본디 중국인으로 이 땅에 들어온 3세이다. 자못 넉넉하게 살았는데 채선생(蔡先生)[중국인으로 여기에 사는 사람인데 복건인(福建人)의 주인이 된다.]이 말해주어 쌀 50루(簍) [1루는 10말]를 보내고 또 20루를 보냈으며 또 적지 않은 은을 보냈다. 다른 사람 역시 많은 쌀과 고기를 주어서 이로써 호구(糊口)에 의지하였다.[결(乞)의 음(音)은 기(氣)다.]

토인(土人)<sup>15)</sup>은 끈을 꼬는 것은 몰라도 연날리기는 좋아한다. 면사(綿絲), 포사(布絲)[토인은 목피(木皮) 삼(麻類)으로 베를 짠다]를 사서 끈을 꼬아 팔아서 담배값과 술값으로 쓰고 옥문(玉紋)은 날마다 떨나무를 베어서 팔았다.

## 5월

광둥(廣東)의 상선(商船)이 왔다.[여송인(呂宋人)으로 광둥(廣東) 오문(澳門)에 사는 사람인데 여송(呂宋)으로 장사를 다닌다.] 8월에 관(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우리를 상선(商船)에 태워 광둥(廣東)으로 보냈다.

## 8월 28일

배를 띄웠다. 뱃사람이 샴을 요구하므로 대은전(大銀錢) 12개를 주고 밥 역시 스스로 해 먹었다.

---

14) 1804년.

15) 미개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족. 흑인을 달리 이르는 말.

### 9월 초9일

광동(廣東) 오문(澳門)[향산현(香山縣) 땅으로 서남 선박이 모두 모이는 곳 • 여송인(呂宋人)과 홍모(紅毛) 서양인(西洋人) 수만호가 살고 있다. •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집 위에다 집을 올리고 있다. 광동(廣東) 성중 안도 역시 같다.]에 닿았다. 오문(澳門)에는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변방(邊方)을 기찰(讎察)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직책이다. 11일 나를 불러 바람을 만난 정실을 묻고 객사에 두어 몹시 성대 하게 대접하였다.

### 12월 초7일

길을 떠나다.[가마를 타다. 가마를 끄는 두 사람 뒤에 각각 두 사람이 따르고 호송관이 뒤를 따랐다.] 저녁에 향산현(香山縣) [오문에서 120리]에 닿아 3일 머물렀다.[옷 한 벌을 내려 주었다.]

### 11일

길을 떠나 성을 나가서 배를 탔다.[양쪽 언덕에는 석축(石築)이 많고 인가가 있다.] 삼일 만에 광동부(廣東府)에 닿았다.

### 13일

총독부(總督府)<sup>16</sup>)에 들어가 남해현(南海縣)으로 나와 오관(澳關)[관왕(關王) 및 천태사(天台祠)]에 묵었다. 대우는 오문(澳門)에 미치지 못하였다.

### 1일

그 지방 사람이 이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국인이 스

16) 청대(清代) 한 성(成) 혹은 여러 성의 민정, 군정을 관장하던 지방관이 사무를 보던 곳.

스로 말하기를 나는 안남인(安南人)이며, 또 말하기를 고려의 풍속(風俗)은 좋지 않다고. 내가 무슨 까닭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가경(嘉慶) 6년 [신유(辛酉)<sup>17)</sup>] 오문을 내왕하는 여송인(呂宋人)과 짝이 되어 장사를 하는데 30명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 조선지방의 큰 섬[제주를 가리키는 듯하다.]에 닿았는데 다섯 사람이 물을 길으러 육지에 올라갔는데 섬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했다.[본뜻을 알지 못하여 해코지라고 말한다.] 우리는 두려워서 닻을 올려 일본지방으로 피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익사하고 우리 두 사람만 살아서 일본사람의 호송에 힘입어 남경에 이르러 여기에 와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내가 생각건대 신유(辛酉) 11월 집에 있을 때 들었는데 배 한 척이 제주에 와서 다섯 사람이 육지에 내려서 문정(問情)을 하고자 붙들었는데 선인들이 다섯 사람을 버리고 돛을 펴고 가버렸다. 다섯 사람의 얼굴은 칠을 한 것 같고 언어 문자는 통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안남인이 전하는 바가 필시 이 일인 것 같다. 의주(義州)에 닿아서 통사(通事)<sup>18)</sup>의 말을 들으니 더욱 믿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늘 광둥(廣東)을 말하면서 마짜외 라고 하였는데 여송인(呂宋人)은 광둥(廣東)이라고 부를 때는 화어(華語)<sup>19)</sup>를 따른 것이요, 오문을 부를 때는 마짜외(馬哥外)라고 칭했다.[언어(言語)를 보라] 이것이 한 가지 증거이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칠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여송(呂宋)에는 간혹 얼굴에 칠을 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오문(澳門)에 사

---

17) 1801년.

18) 통역을 맡은 관리.

19) 중국어.



는 사람 역시 그렇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이다.

그 사람들은 동자(童子)를 존자(尊者)로서 모시고 음식을 올리거나 말을 탈 때 동자가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다고 한다. 여송(呂宋)의 풍속은 귀인의 머리는 모두 뒤로 늘어뜨려 동자처럼 하고 검은 비단으로 엮어 묶는 것이 세 번째 증거이다.[대개 이국에 도착하면 물정에 밝지 못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먼저 지도해 주니 귀한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머리털은 양털 같다고 하였는데 얼굴이 검은 여송인(呂宋人)의 머리털은 반드시 양과 같으니 이것이 네 번째 증거이다.

다섯 사람이 해를 입은 까닭에 도망했다는 이야기가 당시의 일과 맞는 것이 다섯 번째 증거이다.

시흥(始興)<sup>20</sup>에 당도하여 만난 제주(濟州)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겨드랑이 아래에 주머니[의복에 보인다.]가 있어 은합(銀盒)을 감추고 머리에는 등갓(藤笠)[의복에 보인다.]을 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송(呂宋)의 풍속이니 이것이 여섯 번째 증거이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라 중국 안남 여송(呂宋)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살며 짝을 지어 장사를 하는 것이 한 나라나 다름이 없다. 하물며 안남과 오문은 서로 그리 멀지 않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장사를 하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아, 바야흐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가.[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심양(瀋陽)<sup>21</sup>으로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혼연히 살아 돌아가 바람을 거의 이루었다가 수레를 돌려 동쪽으로 돌아오다

20) 지금의 광둥성(廣東省) 남웅현(南雄縣)의 남서.

21) 중국 동북부 현요녕성에 있는 도시. 옛 봉천. 청의 태조가 도읍을 여기에 옮기고 성경(盛京)이라 했다.

나! 입속에서는 광동(廣東) 마카오(馬哥外)<sup>22)</sup>가 끊이지 않는다. 광동(廣東) 마카오는 분명 이 하늘 아래에 있어 기천만 화동인이 모여 가득한데 마침내 다시 제주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때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건대 내가 유구(琉球)에 다시 표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위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하물며 내가 나그네로 떠돌기 삼년, 여러 나라의 은혜를 입어 고국으로 살아 돌아 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제주에 있으니 안남 여송인(呂宋人)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땀이 솟는다.

#### 갑자(甲子)<sup>23)</sup> 3월 17일

배를 타고 나가기 11일 [1,178리를 가다.] 남웅부(南雄府) 보창현(保昌縣)[호송관 강걸(康傑)이 뒤를 따랐다.]에 이르렀다.

#### 4월 초5일

매령(梅嶺)<sup>24)</sup>을 넘어 [오령(五嶺)의 하나. 가마를 타고 125리를 가다.] 강서계에 들어가 남안부(南安府)에서 묵었다.

#### 초6일

배를 타고 3일을 가서 강주부(康州府)에 닿아 등왕각(滕王閣)에 오르다.[파옥(破屋)이 3,4칸으로 몹시 쓸쓸하다.]

#### 초9일

배를 타고 4일을 가서 강서부(江西府)에 닿아 하루를 머물렀다.

#### 14일

---

22) 중국 광동성 마카오

23) 1804년.

24) 강서성 녕도현의 북동. 일명 수령(修嶺).

배로 6일을 가서 남경(南京)에 닿았다.[성 둘레가 220리라 한다]

#### 20일

배로 50리를 가서 상원현(上元縣) 금릉(金陵)[남경(南京)에서 금릉(金陵)까지 배를 타고 갔다. 옆은 경성(京城)이다.]에 닿아서 초패왕(楚霸王) 관왕사(關王祠) 연자기비(燕自己碑)를 보았다. [비(碑)는 산 정상에 있다.]

#### 21일

큰 강을 건넜다.[넓이 110리] 또 배로 20리를 가서 무호현(蕪湖縣)에서 묵었다.[강을 건넌 후 호수로 들어갔는데 조거(漕渠)<sup>25)</sup>를 통해서 갔다. \*현성 밖의 조거 양쪽 언덕에는 판교(板橋)를 설치하였는데 배가 지나가면 치우고 배가 없으면 설치한다.]

#### 22일

배로 60리를 가서 양주부(楊洲府)에서 묵었다.[주의 성 밖에는 주교(舟橋)를 설치하여 배가 지나가면 열어 준다.]

#### 23일

배를 타고 4일을 가서 삼보(三浦)를 지나다.[양주 이후에는 배가 조거를 통해서 가는데 양안은 석축으로 독을 쌓았고 독 밖의 논밭은 모두 수평보다 수 십자 아래에 있다. \*배는 모두 도랑으로 가는데 군사들이 이를 끌었다.]

#### 26일

삼보에서 육로[가마를 타다.]로 5리를 가서 사도(沙島)[넓이 20리, 아마 하회(河淮)<sup>26)</sup>와 합류하는 곳]를 건너 회음관(淮陰館)에서 묵었다.

---

25) 배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깊이 파서 만든 개울.

26) 황하와 회수가 합류하는 곳.

**27일**

수레를 타고 300리를 가서 산동계(山東界)에 들어간다.

**5월 19일**

황성(皇城)에 도착 하였다.

**20일**

순천부(順天府)<sup>27)</sup>에 가서 곧 흥현(大興縣)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다.

**22일**

예부(禮部)를 뵈고 곧 통사(通事)를 따라 와서 고려관(高麗館)에서 머물렀다.

**9월 28일**

우리나라 황력재자관(黃曆賫咨官)<sup>28)</sup>이 북경에 도착하였다.

**11월 초4일**

수레를 타고 출발하다.

**24일**

책문(柵門)을 지나다.

**27일**

의주(義州)에 도착했다.

**12월 16일**

경도(京都)<sup>29)</sup>에 닿았다.

---

27) 명의 영락(永樂) 초에 북경을 세워 순천부라 하였다.

28) 해마다 중국에서 황력과 자문을 받아오기 위하여 파견하는 벼슬아치.

### 30일

다경포(多慶浦)<sup>30</sup>에 닿았다.

### 을축(乙丑)<sup>31</sup> 정월 초1일

배를 탔다.

### 초8일

집에 도착했다.

## 풍 속(風 俗)

유구인(琉球人)은 어른이나 평교(平交) 동배를 만나도 일어나지 않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복(俯伏)하며 앉을 때는 반드시 꿇어앉는다. 혹시 당하(堂下)에서 당상(堂上)의 사람을 뵈 때는 공손하게 절을 한다.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데 비록 귀인(貴人)의 처(妻)라도 분별하지 않는다.[다만 같이 앉지 않는다.] 하루는 통역이 한 집으로 데려 갔는데 발을 치고 차와 담배를 대접 했다. 남녀가 훌륭하게 차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물은즉 대상관(大上官) [존관(尊官)]의 처(妻)가 우리를 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입으로 빨아 먹는다.[젓가락이 입에 들어가 더러워지는 것을

29) 한양, 지금의 서울.

30) 지금의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원성내마을. 옛 고이나루.

31) 1805년.

싫어했다. •일본 역시 그렇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앉히고 엮을 하며 상여차[이거(輻車)] 삽선(翼扇)<sup>32</sup>[금장식을 했다.] 명정(銘旌)<sup>33</sup>과 여러 사람이 상여를 따르는 예의가 거의 우리나라와 같다. 부인이 상여를 따르면 밖을 포장으로 둘러치고 앞에서 승려가 방울을 들고 이를 인도한다. ○ 사람은 각기 하나의 돌 상자를 땅 속에 만들어 놓고 위를 석회로써 봉하고 옆에는 석문이 있어 장사 지낼 때 관을 상자에 넣고 문을 닫는다. 상자의 크기는 3, 4칸 혹은 5, 6칸으로 족장(族葬)<sup>34</sup>하는 곳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배를 땅에 붙이고 옆드려 읽는다.

언제나 차를 마시고 몸에는 항상 약을 지니고 때때로 이를 마신다.

연대(烟臺)<sup>35</sup>, 연통(煙筒)<sup>36</sup>은 매우 작고 항상 몸에 지니고, 목기(木器)가 있는데 길이는 6, 7촌이고 한 쪽에는 불을 넣고 한 쪽에는 타호(唾壺)<sup>37</sup>를 넣고 나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일본 역시 그렇다.]

코밑수염(口上鬚)은 자르고 턱수염은 놔둔다. 두발은 정수리는

---

32) 발인할 때 영구차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제구.  
33) 상구(喪具)의 하나. 죽은 사람의 관직, 성명을 쓴 기.  
34) 일족을 장사 지내는 곳  
35) 담뱃대.  
36) 담뱃통.  
37)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깎고 바깥쪽은 놉는다. 밀납 기름으로 붙여 상투를 만들고 위에는 굵은 고리(句環)를 만들며 아래로는 남은 머리카락을 감아 묶는다.

천인(賤人)은 어깨에 반드시 묵경(墨鯨)이 있으며 직업에 따라 다르다. 어부는 세 줄의 철사모양이고 부인은 손등에 자자(刺字)<sup>38)</sup>가 있다.

품안에 항상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종이를 밑을 닦는다.  
[일본의 풍속 역시 그렇다.]

귀인(貴人)은 성(姓)이 있고 천인(賤人)은 성(姓)이 없다.

말을 잘 부려 말을 타고 낭떠러지를 뛰어 넘는다.

남여(藍輿)<sup>39)</sup>는 대나무로 광주리처럼 엮었고 나무를 세로로 꿰뚫어 가마를 밑으로 드리우고 두 사람이 맨다.[일본 역시 그렇다.]

저자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은 모두 여인이다.[여송(呂宋) 역시 그렇다.]

발을 가는 것은 큰 팽이를 쓰고 무논은 먼저 쟁기를 쓴다.  
전문(錢文)<sup>40)</sup>은 관영통보(寬永通寶)라 하고 크기는 중국의 돈

---

38) 자자(刺字)함. 살갓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일.

39) 대나무 가마.

40) 돈의 표면에 새겨진 글자.

과 같으며 중국에서 통용된다.

여송인(呂宋人)은 반드시 의자에 앉는다.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차려 손을 흔들거나 갓을 벗어 흔들다. 부모나 어른을 만나면 그 손을 끌어다 냄새를 맡는다.

밥 짓는 것은 남자가 하고 밥을 먹을 때는 가운데 밥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손으로 먹는다. 귀인은 시저(匙箸)<sup>41)</sup>를 쓰고 일간삼지(一幹三枝)<sup>42)</sup>로 꿰서 먹는다.

춤은 남녀가 마주 서서 손을 드리우고(늘어뜨리고)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국서(國書)는 있는데 음(音)은 있으나 뜻이 없고 글씨는 우본(羽本)<sup>43)</sup>으로 가로로 쓰는데 중국 글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벌 하는데 가족으로 채찍을 만들어 넓적다리(정강이)를 매질한다. 도둑을 다스리는 데는 매질한 후 형틀 칼을 가로 놓아 엎드리게 하고 칼을 썩워 얼마 지나면 이것을 벗기고 발을 족쇄로 묶는다. 속전(贖錢)<sup>44)</sup>을 바치면 풀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기한이 차면 풀어준다.

---

41) 숟가락과 젓가락.

42) 한 줄기에 세 가지가 나 있는 것. 포크.

43) 깃-펜 깃을 깎아서 만들어 쓰던 펜.

44) 재물을 내고 형벌을 벗어남, 또는 그 돈.



말을 조련하는데 동아줄로 바른쪽 앞뒤의 발을 묶고[새끼줄의 길이는 발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이다.] 왼쪽도 같이 하여 걸음을 익히는데 이윽고 다 익히면 두 사람이 같이 달려 선후로써 승부를 가른다.

닭싸움을 즐기는데 은(銀)으로 뒷발톱을 만들고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주인이 은(銀)을 바친다.

콩이 없고 시장(豉醬)<sup>45)</sup>은 먹지 않는다. 양(羊)이 없고 쇠고기, 돼지, 녹두열매를 즐겨 먹으며 그 꼬투리를 따서 돼지고기와 섞어 나물을 만들면 먹을 만하다.

담뱃대가 없고 잎담배를 말아서 한쪽은 태우고 한쪽으로 뺏다.

크기가 여러 아람<sup>46)</sup>의 도마뱀(蜥蜴)을 국을 끓여 먹는다. 가슴이 괴롭고 답답할 때 빗물을 마시면 내려간다.

## 궁 실(宮室)

유구(琉球)의 집은 네모지고 반듯하나[우리나라의 이른바 샷갓집과 같다.] 간혹 굽은 집도 있다. 방구들(온돌)은 없고 벽과 바닥[없고

---

45) 된장, 간장.

46) 위(圍): 어른의 좌우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으로 쥐었을 때의 둘레의 길이. 약 5치의 둘레.

누을 곳을 이룬다.]은 모두 판자로 되어있고[가난한 사람은 대를 엮어서 만들었다.] 겉은 모두 벽이다. 전면은 모두 통해 있고 창호는 없다. 부자는 간혹 문을 설치하는 데 한 면 전부를 두짝문으로 하고 판자로 만든다. 빛을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열 뿐이다. 곳집은 없고, 방안의 한 구석에 따로 꾸민다. 밖에는 별채가 있어 손님 접대한다. 담장을 두르고 문짝은 세우지 아니한다. 지붕을 덮는데 기와가 있고 풀이 있으며 혹은 기와는 없이 풀만 올리기도 한다.

관사(官舍) 또한 밖에 담장이 있으나, 비록 국도(國都)라도 성곽(城郭)은 없다.

여송(呂宋)의 집 역시 모두 네모지고 반듯하다. 사방은 3~5칸으로 같지 않다. 주춧돌은 없고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고 높이 2~3장(丈)47) 위에 층집을 만들어서 거처하는 방으로 하여 사다리를 두고 오르내린다. 벽과 바닥은 모두 판자로 되어있다. 앞뒤로는 모두 석린(石麟)48)으로 창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혹은 판자로 한다.] 대(竹)로 덮는다. 부유한 사람은 석회로 담을 쌓는데 사각형을 이룬다.[담장의 높이는 4~5장(丈)이다.] 담장위에 종횡으로 나무를 놓고 나무위로 집을 엮어 위는 기와로 덮고 집으로 낙숫물을 내려 받아서 안으로 그 담장을 깎아 물이 가운데로 모여 내리게 하여 수고(水庫)를 만든다. 부엌은 수십보된 곳에 따로 두고 옥상에서 운제(雲梯)49)로 서로이었다.[화재가 빈번하여 불을 경계

47) 길이의 단위. 10척(周尺).

48) 운모(雲母)를 널리 이르는 말. 유리를 말하는 듯.

49) 구름다리.

하여 부엌을 멀리 했다 한다. • 혹시 실화자가 있으면 반드시 관에서 가두어 다스렸다.]

창고 역시 층집으로 만들고 벽은 모두 밖으로 기울어 위는 너럭하고 아래는 줄여서 비스듬하다. 곡식과 이삭을 저장하는데 집단을 묶어서 짊어 놓고 쥐의 침범에 대비 하였다.[유구(琉球) 역시 같다.]

신묘(神廟)<sup>50)</sup>는 3~40칸의 긴 집으로 비할 곳 없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이로써 신을 모시는 대중을 대접 하였다.] 신상을 모셔 놓았다. 신묘 한쪽 꼭대기 앞에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에 금계(金鷄)를 세워 바람에 따라 머리가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돌게 하였다. 탑 꼭대기 아래 벽의 밖으로 크기가 같지 않은 종 4~5개를 걸어 제사와 기도 등 일에 따라서 다른 종을 친다. 한 사람이 종을 치면 듣는 사람이 각자 소리에 따라 와서 예배를 드린다.

성곽(城郭)과 울타리가 없다.

## 의 복(衣服)

유구(琉球)에는 바지가 없고 다만 긴 저고리만 입는다. 길이는 발에 까지 이르고 소매는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다. 다닐 때는

---

50) 사당: 선조의 영을 모시는 곳.

옷자락을 걷고 남녀의 옷을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베로 하체를 싸고 버선은 귀인이라야 비로소 신을 수 있는데 홑 베로 만들어 코를 두 갈래로 하여 한 쪽은 엄지발가락을 감추고 한 쪽은 네 발가락을 감추었다. 신은 모두 짚신인데 다닐 때에는 엄지발가락을 신 들레 사이에 끼운다.[역시 일본 풍속(風俗)과 같다.]

갓(冠)이 없다. 귀인(貴人)은 모자가 있는데 대략 우리나라 아전(書吏)의 모자와 비슷하나 조금 낮고 짧다. 비녀(短簪)는 은(銀)이나 구리(銅)로 만들고 머리에는 국화장식을 만들어 상투에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꽂는다.

승복(僧衣)은 우리나라의 소위 장삼과 흡사하다.

부인(婦人)은 남자를 하고 비녀는 대모(瑤瑠)<sup>51)</sup>를 쓴다. [가난한 사람은 흑 대(竹)를 쓴다.]

천인(賤人)은 일을 할 때 나뭇잎[보통 구바목 이라 부른다.]으로 샷갓을 만들어 쓰는데 우리나라의 대샷갓과 같으나 좀 작고 그것으로 해를 가린다. 부자(富人)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여송(呂宋)의 홑저고리는 옷깃이 없다. 옷웃은 머리부터 아래로 덮어 쓴다. 소매는 팔을 겨우 넣을 수 있다. 옷깃에는 구리단추(銅紐)[금(金), 은(銀), 동(銅) 정해져 있지 않고 옷깃에서 옷자락까지 약 10개 이다.]가 있어 이를 묶는다. 겨드랑이 솔기 밑에는 주위에 8

---

51) 바다거북. 대모(瑤瑠) 남해에서 나는 바다거북의 하나.

개의 주머니[혹은 4개, 혹은 10여개로 정해져 있지 않다.]를 만들어 편하게 차도록 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모두 옷자락이 있어 긴 것은 무릎에 이르고 아래는 좁아진다[긴 것은 귀인의 옷이다.] 수도(修道)하는 사람은 검은 비단으로 장포(長袍) [우리나라의 소위 주새의(周塞衣)와 같다.]를 만드는데 길이는 발에 이른다.

바지. 귀인의 바지는 아래로 버선과 잇대어 하나로 되어있고 몹시 좁아서 겨우 정강이가 들어간다. 앞에 중요한 곳 앞에는 두터운 면을 댈다.[하체가 볼록하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천인(賤人)의 바지는 양다리가 몹시 넓다. 대략 우리나라 부인(婦人)의 훌바지(禪袴)와 같다. 허리띠가 없고 접어서 빈 전대를 만들어 줄을 꿰어 맨다.

갓은 귀인은 가죽으로 만들고 대략 우리나라의 소위 전립(靛笠)을 좌우로 접은 것과 같다. ○ 상인(常人)은 등나무로 엮어 만든다. 위는 절풍모(折風帽)<sup>52)</sup>와 같고 크기는 이마에 다다르며 챙은 여러 치가되기도 한다. ○ 천인(賤人)은 오색 천[무늬는 바둑판 같다.]으로 쓰개를 만들어 머리를 덮는다.

부인(婦人)의 저고리는 남자와 같다. 아래로 치마가 있고 주위는 무두 막혀 있으며 허리띠가 없고 옷깃을 접어서 빈 전대를 만들어 줄을 꿰어 맨다.

---

52) 삼각형으로 된 마름모꼴 모자. 고깔 모양의 모자.

두발은 남자는 머리털을 깎거나 혹은 깎지 않는다. 수도인(修道人)은 정수리를 남기고 밖은 깎는다. 수염은 모두 깎는다. 부인(婦人)은 남자를 하고 혹은 산발(散髮)하여 은으로 만든 빗이나 대모(玳瑁)를 꽂는다.

모기가 극성이다.[여송(呂宋), 유구(琉球), 광둥(廣東) 모두 그렇다.] 유구인(琉球人)은 종이로 껌작 같은 장막을 만들어 잠 잘 때 몸을 덮어 모기를 막을 수 있고 또 바깥의 습기를 피한다.

### 해 박(海 舶)

유구(琉球)의 작은 배는 밑이 베틀의 북<sup>53)</sup>과 같아 뱃머리는 극히 좁고 선미(船尾)는 허리보다 줄이지 않았다. 북의 위 좌우의 바깥을 각판(閣板)을 붙여 물에 뜨기 쉽게 하였다. 각판(閣板)의 위에는 뱃전을 붙였고 허리에 돛대 하나를 세워 돛은 무명베로 활터에 세운 과녁판처럼 쳐진다. 키는 고물에 뱃바닥을 향하여 넣고 가로로 큰 나무를 키의 기둥에 꽂았다. 키의 길이는 배의 허리에 이르고 키잡이는 배의 중간에 뒤를 향하고 앉아 키를 잡는데 가는 것은 매우 경쾌하다.

큰 배는 바닥은 하나의 판을 쓰되 좌우에 판을 붙이고 전판(傳板)은 높이는 가히 3장(丈)을 웃돌고 넓이는 약 4~5장(丈), 길이는 가히 수 십장이다. 앞[이물]은 좁고 뒤쪽[고물]은 넓다.

53) 사(梭) : 피륙을 짤 때에 씨울의 실꾸리를 넣는 베틀의 부속품의 한 가지.

가룽은 모두 두꺼운 판자로 벽을 만들고 뱃전 바깥에서 쇠못을 꽂아 고정한다.

가운데는 뜰집(篷屋)을 만든다. 집의 좌우에 판자를 세워 구멍을 통하여 파도가 출입하게 한다. 옥상에는 또 뜰집을 만들고 뱃머리에 큰 다리를 만들어 다리위에 깃발을 꽂아 지휘하면 키잡이가 그것을 보고 키를 잡도록 하였다. 키는 바로 세워 동아줄로 묶고 배 밑바닥에서 뱃머리와 묶어 밖으로 기우는 것을 막았다. 키를 잡는 망루는 2층으로 지어 아래는 6인이 키를 잡고 있고 위에는 두 사람이 앉아 지남철(54)을 가지고 있다. 돛대 두개를 세우는데 가룽에 설치하여 돛대가 배 밑바닥에 붙지 않게 하였다. 돛은 구파목(九波木)(55)의 잎[토산을 보라]을 쓴다. 앞뒤로 대를 엮어서 잎을 붙여 고정 시킨다. 돛의 좌우에 또 베돛이 있어 이를 돕는다. 나뭇잎 돛의 위에는 3~4장(丈) 길이의 여유가 있어 바람이 적으면 나머지 돛대에 베돛을 펼친다. 고물의 좌우에는 두개의 작은 돛대가 있어 베돛을 펼쳐 타력(舵力)을 돕는다. 배의 허리의 좌우에 큰 판자문을 만들어 배가 갈 때는 물길는 배를 끌어올려 넣어둔다.

여송(呂宋)의 배 밑 바닥은 하나의 판자로써 바닥판의 위로 좌우에는 3~4개의 판자를 매우 좁게 하여 비스듬히 내려가게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가파르고 넓게 한다. 뱃머리는 밑판에 붙이되 기둥 하나를 세워 좌우 현판(뱃전)의 머리를 기둥에 비늘처럼 붙여서 고물은 아주 좁으나 이물은 넓게 된다. 배의

---

54) 나침반.

55) 빈랑(檳榔) 야자과의 상록교목. 높이는 15m에 이른다.

높이는 3장(丈)이고 길이는 15~16장(丈), 넓이 3장(丈)[이것은 중간 배이다. 큰 것은 길이가 20장이다.] 가로는 없고 맨 앞에서 끝까지 2자(尺)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뱃전에 붙여 쇠못으로 고정했다. 때문에 배 안은 넓고 텅 비어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돛집은 유구(琉球)와 같고 키의 꼬리는 바로 세워서 올리거나 내릴 수 없고 매우 작다.[배 밑이 이미 협소하여 물에 들어가면 키와 같아서 배 밑이 키를 돕는 까닭에 키가 작아도 능히 견디는 것이다.]

돛대 3개를 세웠다. 돛대는 모두 4~5마디로 떼었다 붙였다할 수 있어 바람에 따라 늘리고 줄인다. 돛은 흰 모시 베를 써서 펼쳐면 과녁 같다. 뱃머리에는 앞을 향하여 비스듬히 돛대 하나를 세우고[구고현(句股弦)의 현면(弦綿)과 같다.] 돛 하나는 세로로 펼쳐[한쪽 끝은 위를 향하고 한쪽은 아래로 드리운다.] 배가 좌우로 흔들림이 없게 하고, 돛 하나는 가로로 펼쳐[뱃머리 아래로 가로로 펼친다. 역시 한쪽 끝은 위로 하고 한쪽 끝은 아래로 한다.] 배가 좌우의 바람을 받게 한다.

작은 판자[사방 4, 5치] 한쪽에 쇠를 묶어[순효(純鏹)] 가운데 구멍을 뚫고 얼레에 묶는다.[줄의 길이는 정함이 없다.] 두개의 작은 병을[병은 유리이고 크기는 같으며 수 흡이 들어갈 만하다.] 병 하나에는 모래를 넣고 다른 하나는 비워 둔다. 배가 큰 바다에 나가면 한 사람이 얼레를 들고 판자를 물에 던져 얼레를 풀고[가장자리에 쇠가 있어 아래로 던지면 판자는 반듯하게 서고 줄을 풀어 물에 던지면 판자는

56)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낀 두변 가운데 긴 변을 고(股), 짧은 변을 구(句)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현(弦)이라 한다.



그 자리에 멈추고 배는 이미 앞으로 나가 판자는 언제나 뒤에 있다.] 한사람은 두개의 병을 들고 모래가 있는 병을 들어 모래가 있는 병을 위로 하고 빈 병을 아래로 하여 두 병의 주둥이를 맞추어 위에 있는 병의 모래가 아래의 병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병의 모래가 다 끝나면 줄을 거두어 이를 재어서 모래가 끝나는 시간에 배가 얼마나 갔는지 아는 것이다. 이처럼 하루에 4~5차례 하여 그 날 몇 리나 갔는지 아는 것이다.

○ 연철(鉛鐵)로 반구형(半球形)[무게는 수십근]을 만들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줄을 꿰어 아까 것에 소기름을 바른다. 이에 돛을 풀고 뱃전 가에 다섯 사람이 늘어서서 연철에 꿰 줄을 나누어 갖게 하고[사람이 갖고 있는 줄은 각각 수 십장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쇠를 물에 던지고 다음 사람은 줄을 풀고 나머지도 각각 차례로 줄을 풀어 쇠가 땅에 닿으면 줄을 거두어 재어서 수심을 안다. 또 발라 놓은 기름에 묻은 흙을 시험하여 거기가 어느 지방인지 아는 것이다.

## 토 산(土産)

유구(琉球)에는 구파(九波)[구바] 나무가 있다. 잎은 크기가 한자(尺)쯤이고 두께는 두꺼운 종이와 같다. 해가 오래된 것이 좋고 견고하고 질겨서 곁에 따라 찢을 수 있고 가로로는 갈라지지 않는다. 토인(土人)은 부채, 샷갓, 배의 돛을 만든다.

감자(甘藷)는 매우 많다. 밭에는 태반이 이것이다. 토인(土人)은 항상 이것을 먹는데 색깔이 붉은 것이 좋다.

마사(磨沙)<sup>57)</sup>는 풀이름이다. 길이는 2, 3장(丈)이고 크기는 여러 아리며 위에는 몇잎 같은 수십 개의 큰 잎이 있다. 열매의 색깔은 황색이고 모양은 노란 오이를 닮아 달고 맛이 좋아 먹을 만하다. 그 줄기를 취하는데 겹겹으로 되어있어 껍질에서 심<sup>58)</sup>까지 차례로 벗겨서 모두 실을 만들어 베를 짜는데 마포에는 미치지 못 하나 쓸 만하고 심에 가까운 것이 좋다.

닥나무 종이(楮紙)는 극히 값이 싸다. 색깔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깨끗함은 뛰어나다. 두꺼운 것이 더욱 좋다.

오월(五月)에 벼를 거두어들인다.

왕뱀(蟒蛇)을 말렸다가 기가 허할 때 다시마와 삶아서 먹는다.  
[다시마는 매우 싸다.]

백자기와 가마솥은 없다. 부자사람은 모두 중국산을 쓴다.[여송(呂宋)도 같다]

여송(呂宋)에는 솜(木棉) 나무가 있는데 길이는 10자(尺) 남짓하고 봉우리가 큰 것은 가지만 하고 중간 것은 밤송이만 하다. 6, 7월에 꽃이 피고 꽃은 솜(草綿) 같으나 씨는 꽃 속에 있지 않고 따로 꽃송이의 바닥에 있다. 토인은 이것으로 베를 짜지 않고 오직 베개 속으로 쓴다.

57) 파초과에 속하는 중국원산의 열대성 다년초

58) 나무 가운데의 연한 줄기.

초면(草綿)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몹시 크고 푸짐하며 견고하고 질기다. 활로 타지 않으며 오직 딱딱한 채찍을 쓴다. 또 황면(黃綿)이라는 것이 있다.[혹은 천을 짜서 옷을 만들고 혹은 베를 짠다.]

11월에 벼 수확을 시작하는데 백과백채(百果百菜)가 초가을과 같다.

물소(水牛)는 거의 소와 비슷하여 색은 까맣고 배는 크며 목은 가늘고 눈은 빨갛다. 뿔은 길이가 2자(尺) 남짓으로 서로 마주 향하여 활처럼 굽어 있다.[바로 말하는 흑각(黑角)이다. 중국에 들어가 북에서 남경에 이르기 까지 모두 있는데 뿔이 길지 않다.] 풀을 먹고 항상 물속에서 쉰다. 소처럼 타고 다니고 달구지를 끌고 다닌다. 성질은 길들여졌지만 줄로 목을 묶어 놓았다. 놓아 주려면 줄만 풀면 된다. 몹시 번성하다.

여지(荔支)[속명은 듣지 못했다.] 크기는 10여 장이며 잎은 길고 두텁다. 3월에 익으며 열매는 크기가 오이같고 색은 짙은 황색이며 씨는 살구씨 같으나 길고 맛은 달고 시원하다. 토인은 상식(常食)하며 혹은 반찬을 만든다. 익지 않은 것은 채소절임을 만드는데 새콤한 향이 매우 좋다.

빈랑(檳榔)<sup>59)</sup>[속명은 듣지 못했다]은 매우 흔하다. 나무 잎으로 재를 바르고, 열매를 잎으로 싸서 먹는다. 식후에는 반드시 먹는다.[영남에는 모두 있다.]

---

59) 야자과에 속하며 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산출되는 상록교목(常綠喬木), 과실은 달걀형인데 식용 또는 한약재로 두루 쓰임.

하마(蝦蟆)<sup>60)</sup> 매우 번성하다. 소금을 뿌리면 바로 죽는다. 발과 배를 떼어내고 삶아 먹는다.

---

60) 두꺼비 과에 속하는 개구리 비슷한 양서류.

언어(言語)	유구(琉球)	여송(呂宋)
人(사람)	쑤	
男(남자)	우찌가	
女(여자)	우나귀	신교
國王(국왕)	오	
丞相(승상)	우슈	
大官(대관)	대상광	아리가
小官(소관)	쇼광	기제단
通事(통사)	두즈	
美(미) 面官 <small>・我國風憲<sup>61)</sup>之屬</small>	비사	
修道人(수도인)		썬릭
土人(토인) <small>所奉大神</small>		전다마리
富人(부인)	후썬인	
童兒(동아, 아이)	가마두	
無姓人(무성인)	미썬부	
彼人(피인)		곰썬릭
口(입)	구지	
耳(귀)	미미	
鼻(코)	피이	
陽莖(양경)	던익	
婦人私處(부인 사처)	마릭	
坐(좌)	맨소오리	썬인다
喫(마시다)	우가사리	
誰(누구)	우	여얼

61) 풍헌(風憲) : 조선 때 향소직(鄉所職)의 하나. 면, 리의 일을 맡아 보았음.

諾(낙, 승낙)	오오또	
眠(면, 잠자다)	이 닉띠	돌노비
死(사, 죽음)	신응	몰니다라
歌(가, 노래)	가재	
舞(무, 춤)	우두이리	
謝罪(사죄)	군에하	신이오라
辱人(욕인, 수치스런 사람)	와사라문	ㄱ리후
不知(부지)		미아짜비
可憐(가련)		보블에
福(복)	후	
風(풍, 바람)	간의	
月(월, 달)	과치	즈미
正月(정월)	쇼가치	
二月(이월)	임과치	
三月(삼월)	산과치	
四月(사월)	스과치	
五月(오월)	우과치	
六月(유월)	숙구과치	
七月(칠월)	치시과치	
八月(팔월)	화치과치	
九月(구월)	궁과치	
十月(시월)	시과치	

十一月(십일월)	시모지지	
十二月(십이월)	시와시	
每日(매일)	미니치	
水(수, 물)	미직	놈
山(산)	산실이	
馬(마, 말)	마	가마
牛(우, 소)	우시	마삿오
豕(시, 돼지)	시시	마부
鷄(계, 닭)	두리	만속
米(미, 쌀)	구미	마가시
橋(글)	군희부	
甘藷(감저)	한우슈	
甘蔗(감자) 沙糖草(사탕초 사탕수수)	육이	
烟草(연초, 담배)	다박귀	다박귀
雨傘(우산)	가사	
箸(저, 젓가락)	하시	
烟臺(연대)	시리	
草扉(초비, 사립문)	사바	
繩(승, 노끈)		노빌
露酒(노주, 소주)	쇼주	
豆腐(두부)	두후	
油(유, 기름)	안다	
福建(복건)		의무

北京(북경)		마다리
朝鮮(조선)		약방
澳門(오문, 마카오)		마짜외
一啖 (일로미)		일노꼬
西南馬宜(서남마의)		셔람마기
王都(왕도)		방아시나
福建(복건) 人所居里		말나라
日本(일본)		합본
白村(백촌)	두마	
大(대)		ㄱ란디
小(소)		아다
一(일)	씩잇	매스
二(이)	쫏	노이
三(삼)		달노
一鐵(일전)		매스꼬아리식
大銀錢(대은전) 直銅錢八十文		비슈
中銀錢(중은전) 直四十		살노박
小銀(소은) 直二十		멩텡
小小銀錢(소소은전) 直十		식가뵏
最小銀錢(최소은전) 直五		식가월노
錢(전, 돈)	칸의	부악
價幾何(가기하, 값이 얼마?)		쑤짜릭관도예시
交易(교역)	케라	
家舍(가사)		가산
船(선)	후늬	삼반



文字(문자)	시미	
筆(필, 붓)	후디	
紙(지, 종이)	가빌	
囊(낭, 주머니)	밋짱	
簪(잠, 비녀)	이화	
扇(선, 부채)	오지	
有(유, 있다)		아다
無(무, 없다)	비부랑	아완
好(호, 좋다)	주라사	뫼노
大好(대호, 매우 좋다)	주주라사	
出入(출입)		홀루비
平安乎(평안호, 평안한가?)	간쥬야	아리우시
那裏去乎(나리거호, 어디 가십니까?)		곰제릭먼디바시야
何處在乎(하처재호, 어디 계십니까?)	망카릭야	
白村在(백촌재, 백촌에 있습니다)	두마카릭	
彼處(피처, 저기)	아마까라	
此處(차처, 여기)		
取來(취래, 가지고 오다)	무쨌지소	
未去(미거, 아직 가지 않았다)		문시뫼바시야

